

2013

조선 4대 명필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2013

조선 4대 명필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발 · 간 · 사

충청남도 예산 1,100여년 시간의 흐름속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예산, 그 속에서 예산의 얼을 더욱 돋보이게 하신 한분이 오늘 역사의 뒀안길에서 현신하듯이 우리 앞에 와 계신 듯 합니다.

예산의 또 한분의 서성으로 기묘사화로 인해 남해로 유배 가시면서도 곧은 선비정신을 보이시고 유배지에서 경기체가인 화전별곡으로 조선 문학의 백미를 장식하신 문학가이시기도 하며, 부모님 묘위전에서 효도를 행하지 못함에 항상 죄스러워하여 몸을 낮춘 효도의 귀감으로 충·효·예 모두를 실천하신 조선 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絀)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제야 자암 김구선생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분의 행적을 정리하고 중국의 서체를 벗어나 우리나라 본연의 독립서체인 인수체를 창안하신 자암 선생의 함자와 함께한 첫 서예대전을 개최하게 된데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자암 김구 전국 서예대전을 통해 자암 선생님의 업적과 서체를 연구하고 발굴하여 더욱 승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어 충청남도 예산이 대한민국 서예예술의 본향임을 명백히 하고 자암에서 시작하여 추사에 이르기까지 서예예술을 통한 또 하나의 한류문화탄생에 충청남도 예산이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을 개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님과 최승우 예산군수님, 조병희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제1회 대회이자 첫 공모전으로 미숙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관심으로 공모에 응해주신 전국의 서예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1회 대회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발판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선 4대 명필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회 수상작품집



인쇄_ 2014년 2월 22일 발행일_ 2014년 2월 22일
발행처_ 예산문화원 / 자암기념사업회 발행인_ 김시운 · 김충희
기획_ 박세진 행정지원_ 김상희, 윤선은
주소_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예산문화원)
Tel_ 041)335-2441, 333-2441 Fax_ 041)334-4330
디자인/인쇄_ 디자인톤 Tel_ 010-8524-0514

※ 본 책자는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014년 2월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기 · 념 · 사



예산출신으로 조선 4대 명필로 일컬어지시는 자암 김구 선생님의 함자를 앞세워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자암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함이 앞섭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자암 김구 선생님의 선양사업이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 인사들 덕분에 2013년 첫 결실을 맺는 서예대전을 개최하게 되었고 그 주옥과 같은 결과물을 오늘 추사고택 전시실에서 선을 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님, 최승우 예산군수님, 조병희 예산군의회 의장님, 우리지역 도의회 의원님들, 문화원의 최우선 업무로 사업을 추진해주신 김시운 문화원장님께 특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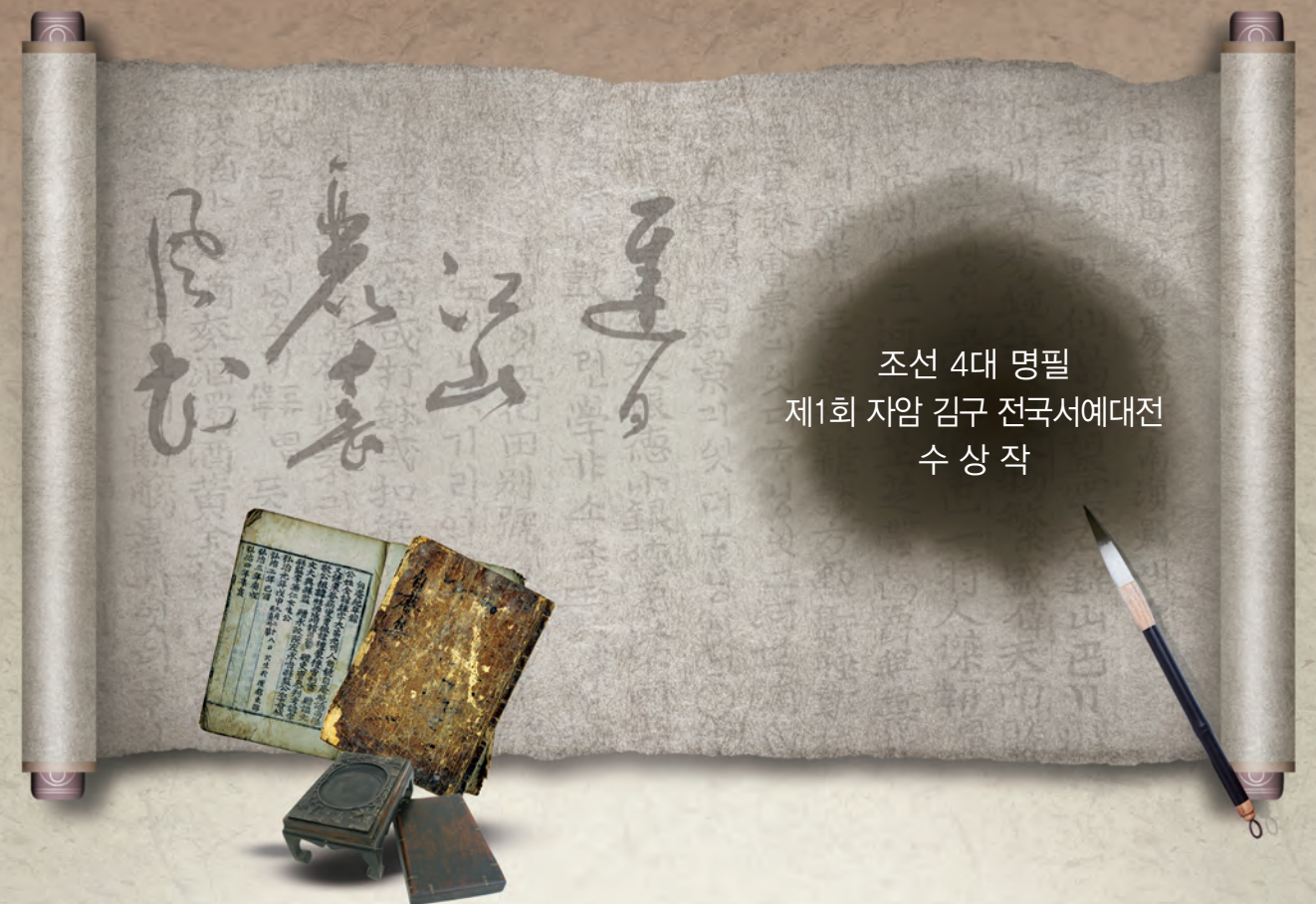
충청남도 예산에 묵향의 계기를 열어 놓은 시조격인 자암 김구 선생님은 조선 4대 명필이여 기묘명현 중 한분으로 추사 김정희선생님과 더불어 우리 지역 예산이 반드시 정립시켜 놓아야 할 예산의 또 한분의 서성이시며, 조선 전기 자암 김구 선생님께서부터 시작된 서도의 맥이 조선후기 추사 선생님에 이르러 그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록 제1회 대회이지만 수많은 응모작품을 통해 보여주신 전국의 서예인들의 열정에 감사 드리며 이를 계기로 자암 김구 선생님을 재조명 하는 굳건한 발판이 놓여지고 첫공모전으로 미흡한 점은 보강하여 2014년에는 충청남도 예산과 자암 김구가 대한민국의 서예예술의 본향으로서 묵향의 중심으로 정립 되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역사와 문화가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받은 우리지역 예산의 열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4년 2월

자암기념사업회장 김 충 희



장원, 차상, 차하

장 원	여인숙	문인화
차 상	김태억 김미정 박희송	문인화 한글 한문
차 하	위고운 이상구 최정화 김종권 박순도 손현주 권미옥 김진복 안무광	문인화 문인화 문인화 한글 한글 한글 한문 한문 한문



여 인 숙



김 태 역

與傲是清
一霜陶秋
枝花家佳
香滿醉節
砌興近
可長重
能想陽
分見正

與傲是清
一霜陶秋
枝花家佳
香滿醉節
砌興近
可長重
能想陽
分見正

贊臣仲秋錄海原君詩
陳田朴喜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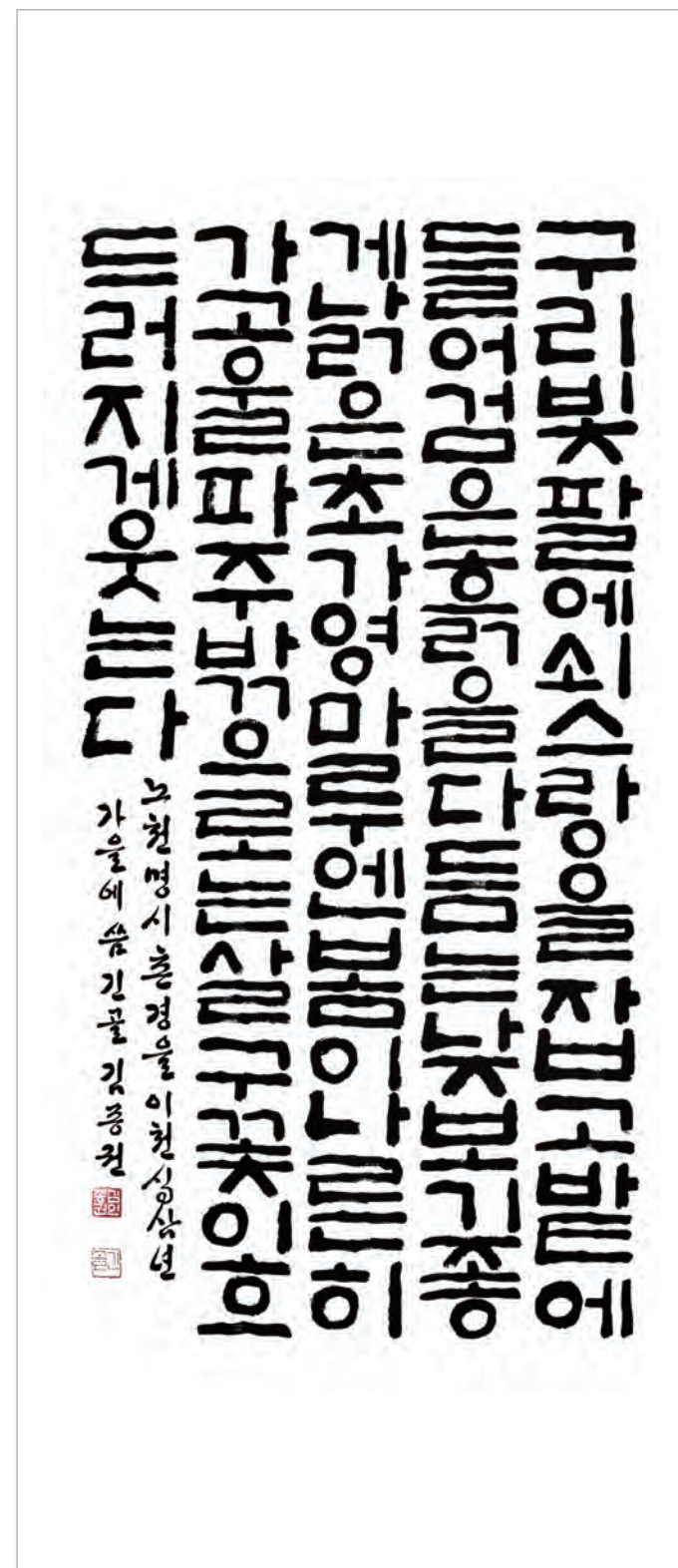
위 고 운



이 상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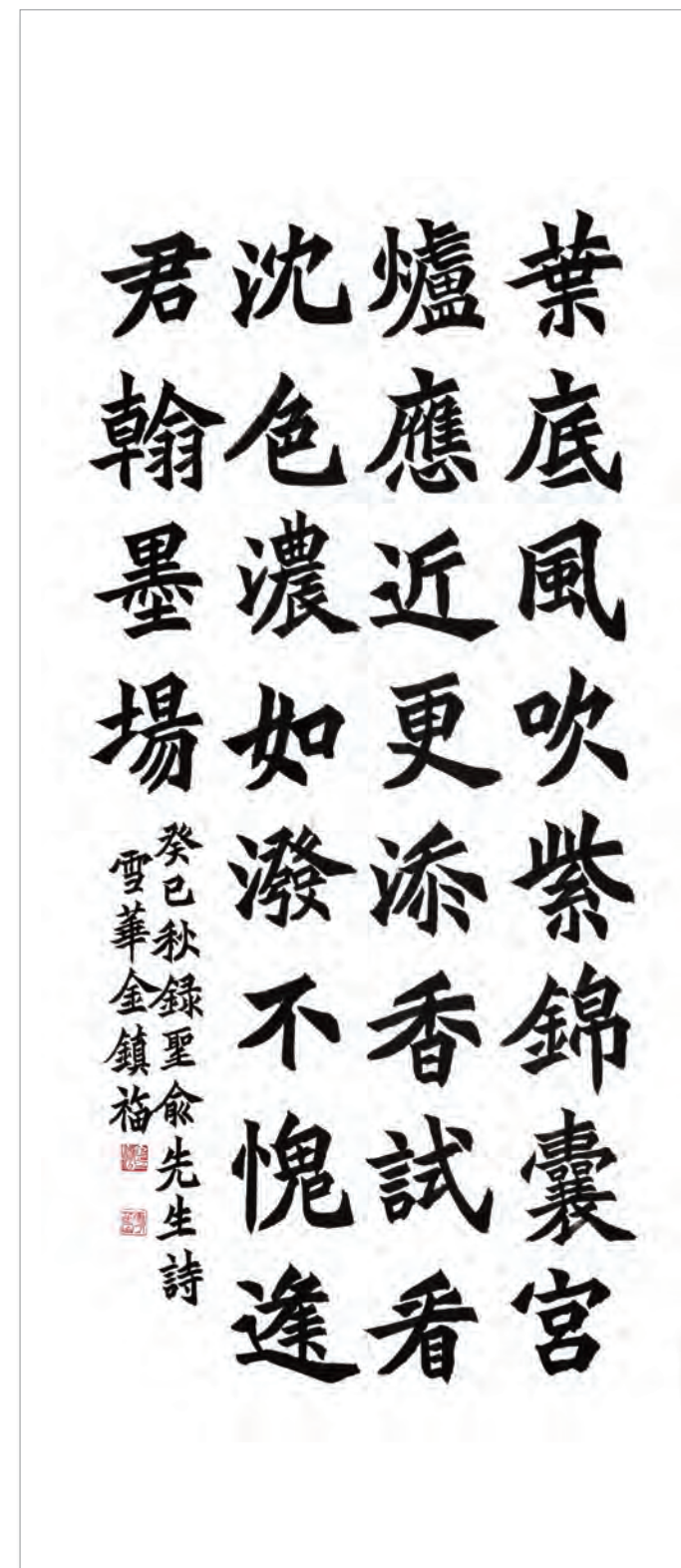
최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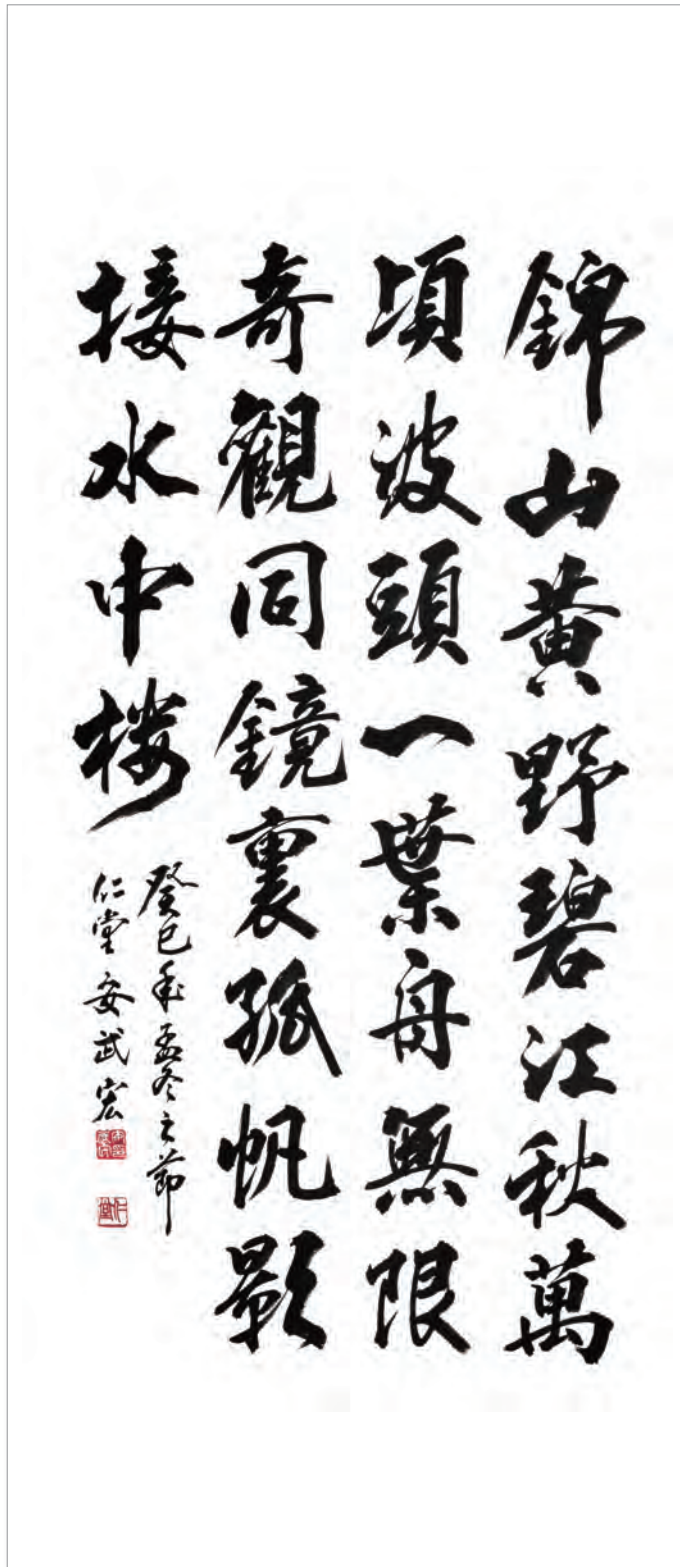


김종권

때향은경은근대역변경언변
 차진익제차향너근금에변진근
 세월은물거늘러향구를그리고정열을되질어황은근
 물그린대성성성우구고은존은아니지만부스끝에이생
 은사랑을고외하고마음을녹여차잔에담는다
 이현심삼십년고을은가을날은이한변은박구를도한다

장을제세장을제세월년의이름을이라만근이
 희동호야승희가일이가또다구구제철을다보려상
 하동신동근로향제동이단각말을오향은동동업시
 희민향다편을모은게그다은동을모은것그다
 생명의화향다향면시를상일을이데일이타웃제
 근기말을외말은을외근잡아보제그를외기어
 러다다동신정로외근보제갈빛은현구





안 무 광



특선, 입선

문인화

특 선 고철성 김연동 김연실 김영오 김현희 남철우 박정범 배희순 서인환 안정희 이규중 임경순 장영주
정영길 정화진 지금순 최승우

입 선 강성미 강신천 강재숙 고철성 권창중 김경자 김귀례 김남례 김선규 김성배 김숙열 김연동 김영숙
김영희 김옥수 김옥순 김인순 김태억 김향배 김현희 김혜숙 남철우 박양신 배희순 서홍석 서환수
송기태 신미림 신영숙 심재수 안경옥 양경희 유순식 유인평 윤석모 이광혜 이미혜 이상길 이서윤
이원순 이종순 이행수 이호임 임경순 임관순 임무순 임일순 장숙희 전영숙 정낙일 조영신 주명식
천건수 천광섭 최천흙

한 글

특 선 구정옥 김해정 남명희 서정숙 정지연 정홍길 조영숙 한경희

입 선 권대현 권미영 권옥순 김관훈 김미정 김미희 김복순 김성배 김수일 김순희 김영미 김정환 김중규
김화자 박복순 박순애 박정화 배호봉 서정택 송동익 안유희 이동화 이명희 이상돈 이영자 이원순
이점수 임문순 정대우 정춘희 최동룡

한 문

특 선 고현국 곽재순 김영희 박병문 백희정 서성우 성백식 송명자 송이슬 송지문 오광석 윤영명 이건주
이광호 이범중 이종암 임지선 장진철 전우진 조정호 지길수 최청환 한이섭

입 선 강덕만 강창수 구주희 권기환 권석일 권혁희 김금자 김능식 김도식 김문순 김문환 김석현 김성배
김성초 김성호 김성희 김숙기 김승한 김태길 김태라 김한용 김현숙 노성진 류기형 박건선 박기조
박병조 박승호 박옥자 박은수 박종협 박종화 박종후 박주원 박찬배 박준옥 서천문 송혜숙 오병학
유병길 윤경숙 윤명자 윤복임 윤우근 이병상 이상관 이윤범 이종언 이종희 이태호 이희정 인화정
임재풍 임창의 장순임 전경지 전희숙 정모영 정순화 정은량 정태현 정희명 조희성 주미라 진현복
촌월명 최문수 최병준 최용완 최익진



고 칠 성



김 연 동



김 연 실



김 영 오



김 현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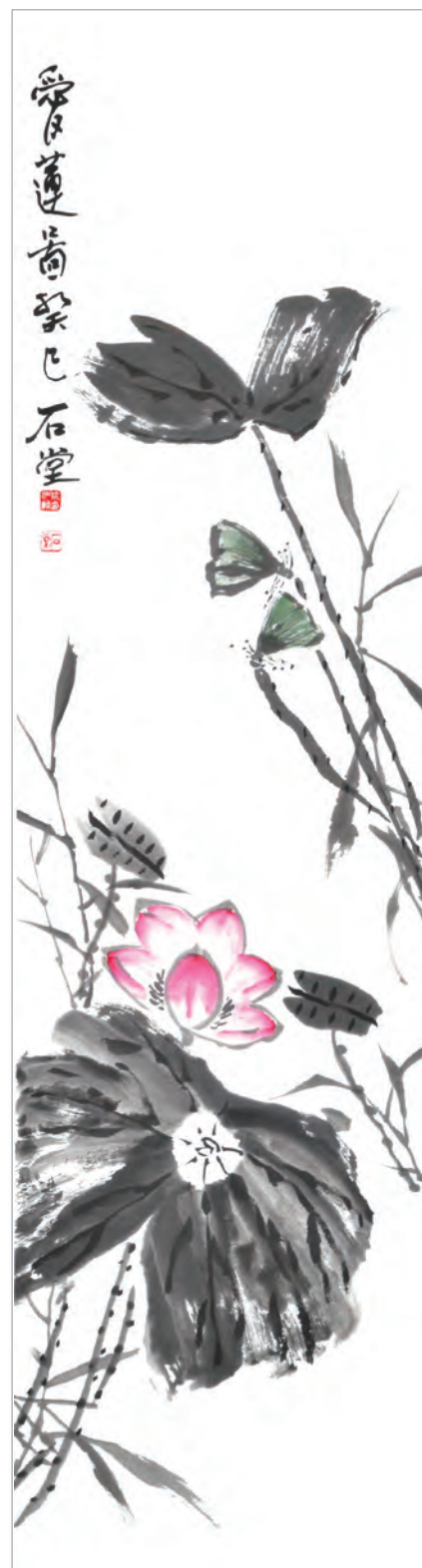
남 철 우



박 정 범



배 희 순



서인환



안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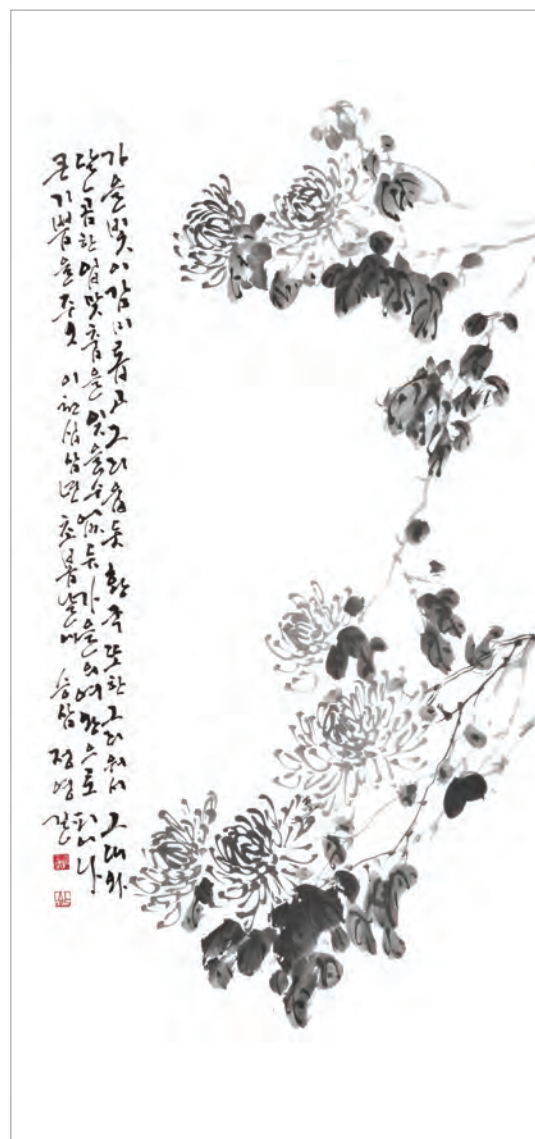
이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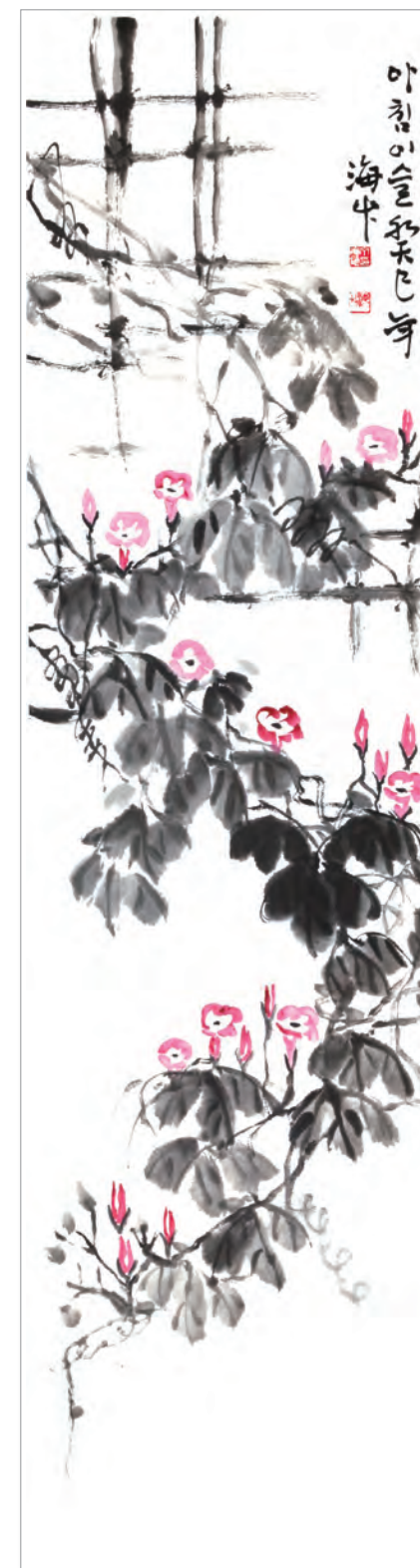
임경순



장 영 주



정 영 길



정 화 진



지 금 순



최승우



강성미



강신천



강재숙



고철성



권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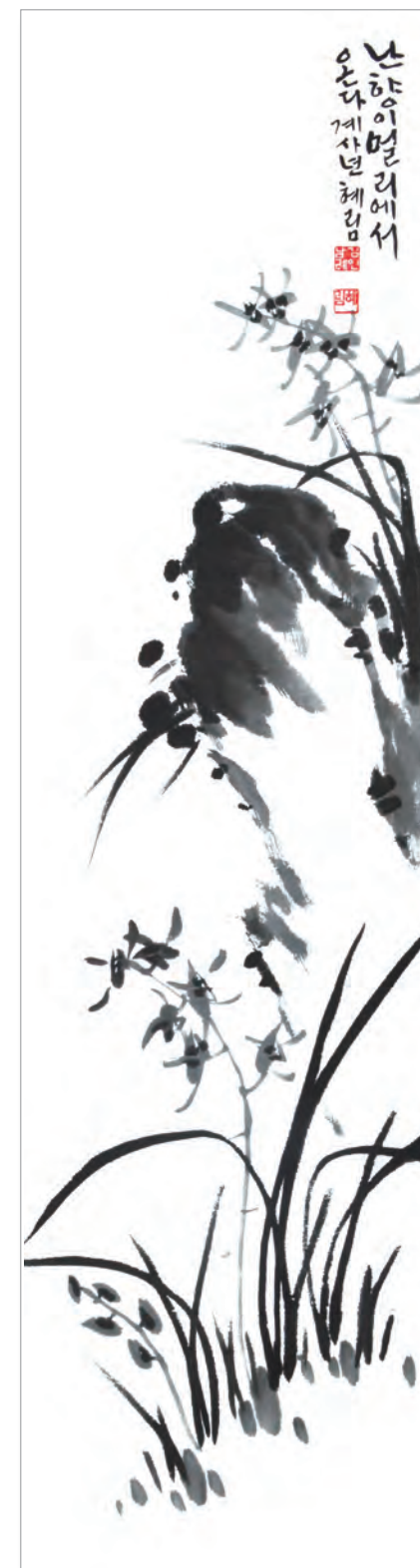
김경자



김 귀 례



김 남 례



김 남 례



김 선 규



김 성 배



김 숙 열



김 연 동



김 영 숙



김영희



김옥수



김옥수



김옥순



김 인 순



김 태 익



김 향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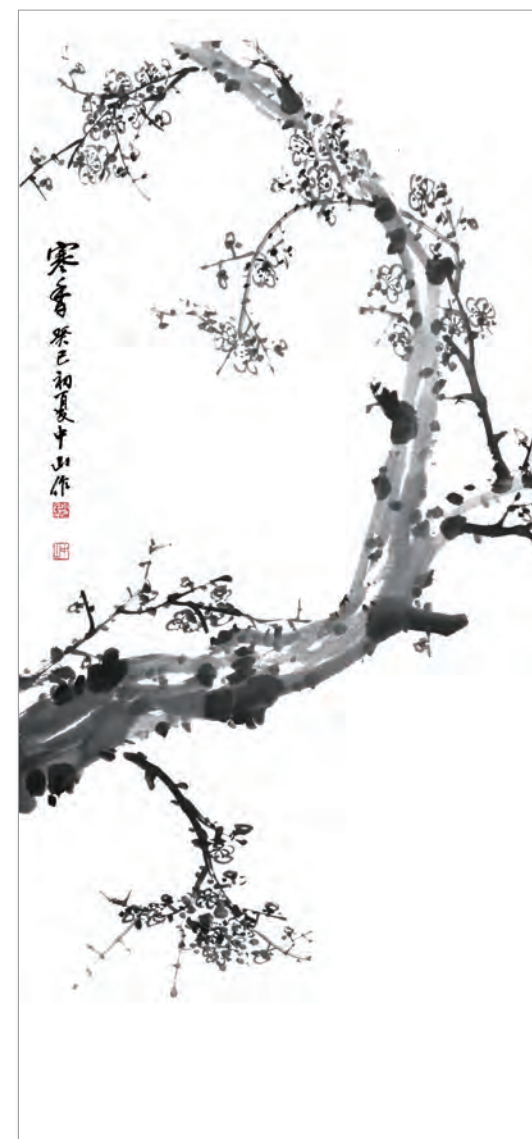
김 현 희



김 현 희



김 혜 숙



남 철 우



박 양 신



배 희 순



배 희 순



서 흥 석



서 환 수



송 기 태



신 미 립



신 영 숙



심 재 수



안 경 옥



양 경 희



유 순 식



유 인 평



윤 석 모



이 광 혜



이 미 혜



이 상 길



이 서 운



이 원 순



이 종 순



이 행 수



이 효 임



임 경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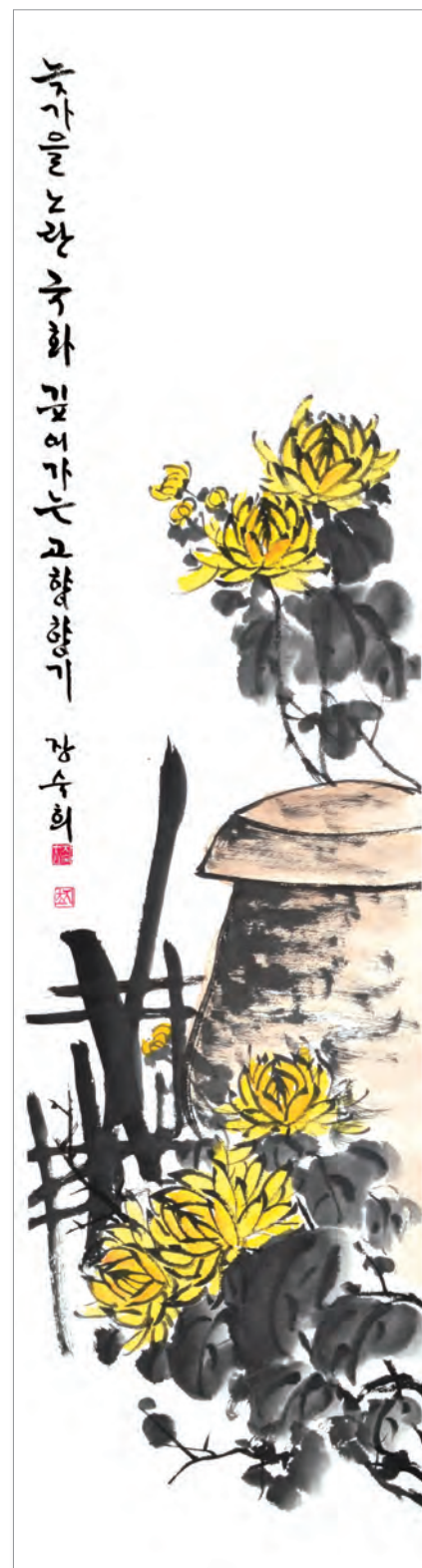
임 관 순



임 무 순



임 일 순



장 숙 희



전 영 속



전 영 속



정 낙 일



조 영 신



주 명 식



천 건 수



천 건 수



천 건 수



천 광 섭



최 천 흙

[illegible]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싶나 항상 마음이 뜨겁게 사랑
이 되고 싶나 항상 뜨겁게 일세로 살아가는 사랑이 되
고 싶나 언제나 체면과 명예를 사랑으로 치명나도 마
음이 따뜻함 사랑 받아 줄에 별다른 사랑이 되고 싶
나 세상의 모든 것들과 원한을 맺고 싶지 않
고 언제나 체면을 가늠하지 않고 의연한
사랑이 되고 싶나 언제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싶나

오세영 기호창

한글서체

하늘의 기미로 땅의 여러 만물을 함양하는
천지의 음양의 조화는 만물이 오르고
사리로 분별되고 내가 흥하고 낙산
조화가 나치우 생호를 사느니 오
이런 청하느니라 하늘의 기미로
외관 양고 것이 마땅히 땅을 습
니와 노릇을 아리따
운다 인과 화를 이루며 천지
이마나까지 보하여서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이월십삼년 가을날 자인구월경 화진현 구암면 단안초에

然則吾人必欲其心之正而後其言
 之正也。然則吾人必欲其心之正而
 後其言之正也。然則吾人必欲其
 心之正而後其言之正也。然則吾
 人必欲其心之正而後其言之正
 也。然則吾人必欲其心之正而後
 其言之正也。然則吾人必欲其心
 之正而後其言之正也。然則吾人
 必欲其心之正而後其言之正也。

눈을 감고 앉아 화도 황히 보이는 나의 고향이 유난히 가지 끝에 빠치소회 형겨 읊고 헛마
루에 매추네 읊도 정이 드는 고향마음으로 담정화로에 밤알이 익던 고향을 박가슴으로 피
리뜨거로 정을 나누면 가난도 기름진 옥젓팜이 되던 내 고향로 푸에 목축이고 마음도 풍성한
로담집 질화로에 밤알이 익던 고향
술박한 가슴들끼리 뜨거운 정을 나누면
가난도 기름진 옥젓팜이 되던 내 고향
별을 손으로 잡았보다 구수한 후회념으로 말은 장날은 부엌에 연 솥안치물음에 하루해도 푸른
였다 북배기 하나 가득 고향마음 새겨 놓아 버리는 천종일은 못고름을 물지 못한 채 서너를
황토길은 돌아가슴 화던 나날로 이어 가인한명희

한 경 희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그네들 사이에 치산보할 때
에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 차당신의 머리에 지
키고 이삭게스름니다 당신의 여름날에 더위를 못이
어 낮잠을 자거든 나의 꿈은 바람이 되어 차당
신의 푸위에 떠돌게스름니다 당신의 고요한 가을밤
에 그윽히 앉아 처를 볼 때에 나의 꿈은 키뜨라미
가 되어 처 책상 밑에 처 키뜨라미 키뜨라미를 게스름니다

제사년 가을 한옹은 남의 나의 꿈을 쓰다 새빛조영숙

조 영 숙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선 4대 명필 중 한 글은 그 아름다운 필획과 독특한 서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글씨를 넘어 예술의 경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글 특선'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걸작이다. 이 작품은 그의 독창적인 서체와 정교한 구성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그의 필력은 오랜 연습과 천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정 홍 길

단풍든 언덕 기러기 날고
국화핀 물가 쥐뜨리 우네
수고로운 농가 가을 뒤자 잠깐 가로워 단풍든 언덕 기러기 날고
국화핀 물가 배워 뜨리 우네 북풍의 퍼리소리 냇속으로 가고 나뭇
조노해가 잘 알빛에 오세 마람은 주는 다 말려지 마소태화 밤은 반
산에 지현히 나 암곡이 성성히 시를 쓰다 소향정지현

정 지 현

[illegible]

김수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참으로 소중히 살고
실나로 응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도 때가 되면 그곳이 되어 나는 한층
이곳처럼 살고 싶다 이 해인님의 시 여항김은희

김 순 희

보수서주님 나의 마음은 청한 것 하나 없습니 다 그 러 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 다 사랑으로 앙무 시 고 날 새롭게
하 스 처 주 님 마음 내 게 주 스 처 내 아 버 지 주 님 마음 내 게
주 스 처 나 를 향 하 신 주 님 의 뜻 이 이 르 어 지 도 록 주 님 마
음 내 게 주 스 처 내 게 사 랑 을 가 르 치 스 처 님 신 의 마 음 으
로 용 서 하 게 하 스 처 주 의 청 령 내 게 채 우 사 주 의 길 가 게
하 스 처 주 님 님 신 마 음 주 스 처 하 람 길 영 미

김영미

사람의 말처럼 중요 한 것은 없다 말은 힘이요 생
명이 다 진실의 말은 우리에게 빛을 주며 신념의
말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희망의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감사의 말은 우리를 따듯하게 한다
칭찬의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하며 감동의 말은 우리
를 흐뭇하게 한다 사람이든 말이요 말은 곧 사
람이다 계사년 종은글중에서 가려쓰다 밑알 김정환 監

김정환

송화가루날리는외딴봉우리속사월해
길다괴고리을면산적외딴집누먼처
너가문설주에귀대이고엿듣고있네

계사상각절승과김중규

김중규

여론 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채로 살아가 왔는데
후르쩍 떠날 날이 오면 비련 없이 떠나
버려도 뜻을 만 큼 살아가 왔는가

총총히 비오는 가을비를 맞으며 열하만큼의 삶을 떠나 가슴에 적셔 왔는가 생각하기
 해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면제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한 채로 살아가는 비늘을
 적터로 날카로운 비점만이 떠나버려도 중용을 만큼 살아가는가가 기사인가를 비
 유해된년의 시아을비를 맞으며 중용에서 안겨적다. 물외검화 卷 選

김 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
기를 이르세 이슬바라는데 나는 괴로워했다 별
을 노래하는 마음은 노래가 주는 것을 사랑
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가야겠
다 오슬바라는데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영환 작곡 한영

박복순

용서는 가장 큰 수행이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용서 받는 날과 내가 새로은 날이 다 똑같은 형에 같혀
새 날을 등지면 안 된다. 맺힌 것을 풀고 자유로워지면
세상 모든 활짝 열린다. 법칭스님글 스월박스에

ਸ੍ਰੀ ਭਗਵੰਤ

그월 박능애

박순애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웠더니 심지를 줄여도
자꾸 불꽃이 올라와 떨어진 거린다 가득 찬 것은
덜 찬 것만 못하단다 하야니 마음에 새배우니 있다

제사장이 일찍이 정승의 대를 이루다 부친의 화를 피다

박정화

바야흐로 한글의 정음에 이르러서야
이제야 한글의 정음에 이르러서야
정음에 이르러서야 한글의 정음에 이르러서야
한글의 정음에 이르러서야 한글의 정음에 이르러서야

동해로 가자구나 남해를 가자나
동해로 가자나 남해를 가자나
동해로 가자나 남해를 가자나
동해로 가자나 남해를 가자나

배호봉

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조선 4대 명필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서정택

비오자 장독장에 봉천화반만 벌여 해마다 희고 꽃을 내다
드고 볼 것이 가게 해 한사면을 천하가 닮게 보되 자나
이런 지 보며 하마를 가듯 이슬과 눈알의 상상이 높고
행집을 그리시고는 봄에 꽃을 피우는 이 날 생각하시리
양지 위에 마르잖아 실로 찬찬 매어 두면 하얀 눈가락
가락이 떨어뜨려 그 눈꽃을 지고야 이 봄을 구워
먹는 것이니

이런 심심한 날에 가을을 봉천화반만 벌여 해마다 희고 꽃을 내다

송동익

사림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명나라가 아까워하는
 자도 없고. 어차피 명나라에 명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적대감이었음과 명나라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원망이 부끄러움이다.

정호승님의 시 읽는 습관을
평화 안에서 쓰다

안유희

벼랑에 징하게 솟은 느티나무를 끼고 돌자 다스름향사로
는냄새가 싸아하게 번져왔다 들마루에 머릿일과 곱취
가 죽죽한 몸을 푸른 햇살에 맡기고 누워잇는 것을 보면 먼
리가 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스님은 불려도 대답이 없었다 이골
짜기 들어온 지 십네 해라 하면서 도아직 막내아들 거저움을
다 놓지 않은 스님은 속내의 바람에 약초밭을 매곤했다 다
디 단자 두꽃향기만 절마당가드 하고 앞산에 산벗자 나무환
하게 몸을 바쳤다 다장끼가 잇을 치며 우짚는 소리에 산그림
자부르르 몸뚱이 떨어졌다 도종환의 남은산사 해랑이동화

100

이 동 화

빛나능파란이름의파란비공하이양꽃마나동
이름의파란이름의파란비공하이양꽃마나동
이름의파란이름의파란비공하이양꽃마나동
이름의파란이름의파란비공하이양꽃마나동
이름의파란이름의파란비공하이양꽃마나동

계사년가을가람시조옥화루를산단이의영의부름

20

이명희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의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서리가 고국의 생각을 돋우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왜놈이 왜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쓰러버릴 길없구나

김좌진장군의 단장지통을 전다한샘이상통

2004

이 상 돈

佛 후고 불공고고불. 매아그물씨. 꽃포터
 여름하. 그심고. 불미불고. 모. 래아니고
 출씨. 내이러바. 래가. 그.

스랑이영자 

이영자

태산이 높다 하여 드 하늘아래 피이로다
강과바다길로다 하여 드 땅위에 들이로다
아마드 높고 길은 것은 청운인가 하노라
이월십삼살년가이월정음종사부인신기영주의사 청송이월은

이원순

이기가외외처가천이만사의기봉이오
 천이하나가천이아닌가천장하가편차사
 천이아닌가천이외의기천이아닌가천이아닌가
 아가천이아닌가천이아닌가아닌가아닌가
 만다가사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
 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천이
 집단의의봉거지나 제사년가을이제이천이

이 점 수

[illegible]

임문순

차창을나나불피산도나나다가더니
나더서늘러보니산이없고나만왔네
나더고적막가나나이생이가하노라

정대우 작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정 대 우

어시의사상인의뜻부의의관관천경영이평부부
하이드안산의시경영의평이양평천경영의평
제시경영의평이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
천경영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
말마지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
야집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
시니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의평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정 춘 희

나더서늘러보니산이없고나만왔네
나더고적막가나나이생이가하노라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이현서 작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한글서예대전 수상작

최 동 룡

育英家裡有賢子
好友堂中多貴賓

癸巳仲秋野亭高鉉國

고 현 국

為國度量深若海
治民德望峻如山

癸巳秋曜崑
郭在淳

곽 재 순

雪殘何處覓春光
漸見南枝放草堂
未許春風到桃李
先教鐵幹試寒香

癸巳仲秋錄南田詩
心研金映希

김 영 희

絕塞孤城暗朔雲
邊聲空使客遭逢
天朝肅旅紛如雨
却畏陰山犬豕群

清江朴炳文

박 병 문

秋空寥廓鳥驚棲餘
滴玲瓏竹影低曉雲
含雨歸前島落月猶
留古堞西

癸巳錄龜峯先生詩
如溪白姬貞

백 희 정

華洞煙霞趁步深桃
源何用枉探尋自從
喫得閑中味壺裡乾
坤認在心

癸巳霜降花潭先生詩
草庵徐聖宇

서 성 우

僊僮蘿褐遠相過披
却琴書若紫霞看羅
恍如驂白鶴飄然蜚
到玉皇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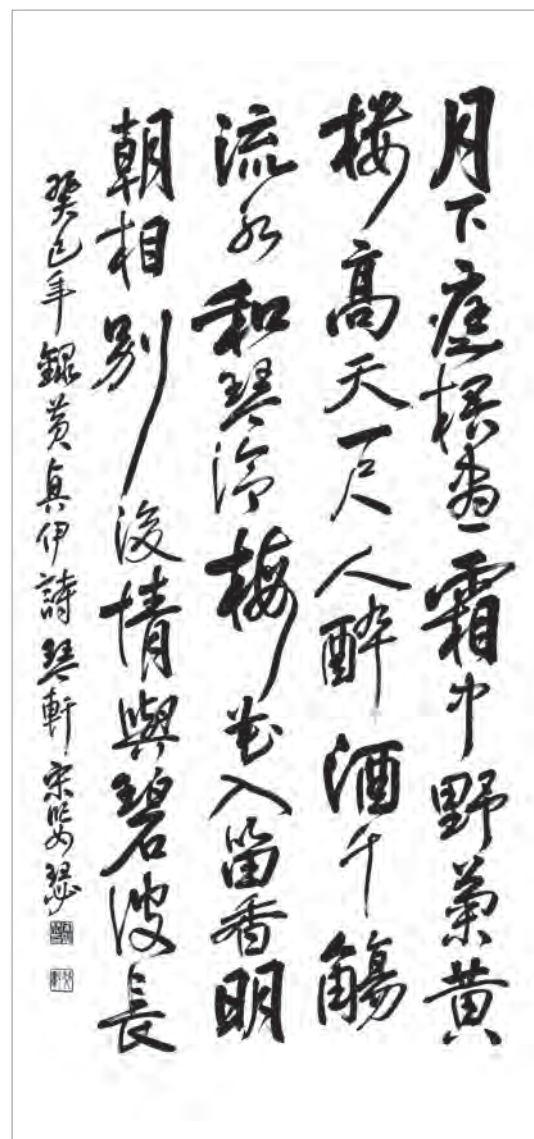
錄自庵先生詩
雲峯成百載

성 백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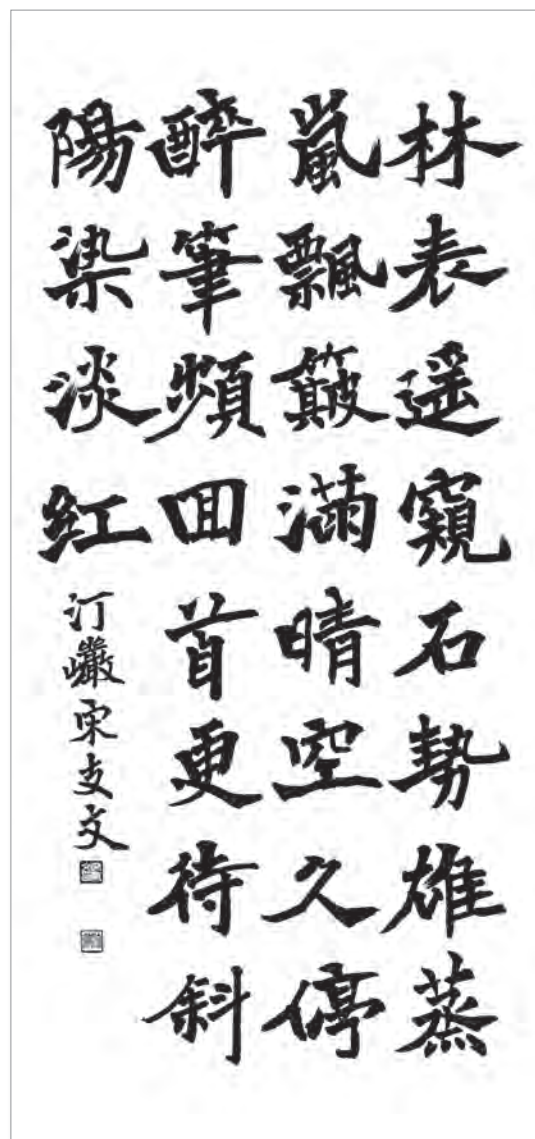
水流而境無聲得
處喧見寂之趣山
高而雲不碍悟出
有入無以機

癸巳仲秋亭妍
宋朋子

송 명 자



송 이 슬



송 지 문



오 광 석



윤 영 명

白首無緣報聖恩
太
平煙月臥山樊
多
情
何物長相對
黃
菊
蒼
苔
前
白
酒
尊

紫巨仲秋錄壺山先生詩
蒼江李建桂

이 건 주

百轉青山裏
閑行過洛東
草深猶有路
松靜白無風
秋水鴨頭綠
曉霞猩血紅
誰知倦遊客
四海一詩翁

錄李奎報先生詩癸巳秋日德岩李光鶴

이 광 호

滿樹春紅泣露華
映門垂柳欲藏鴉
作詩亦是妨真興
閑看東風掃落花

錄梅湖陳萍先生詩曉山李範重

이 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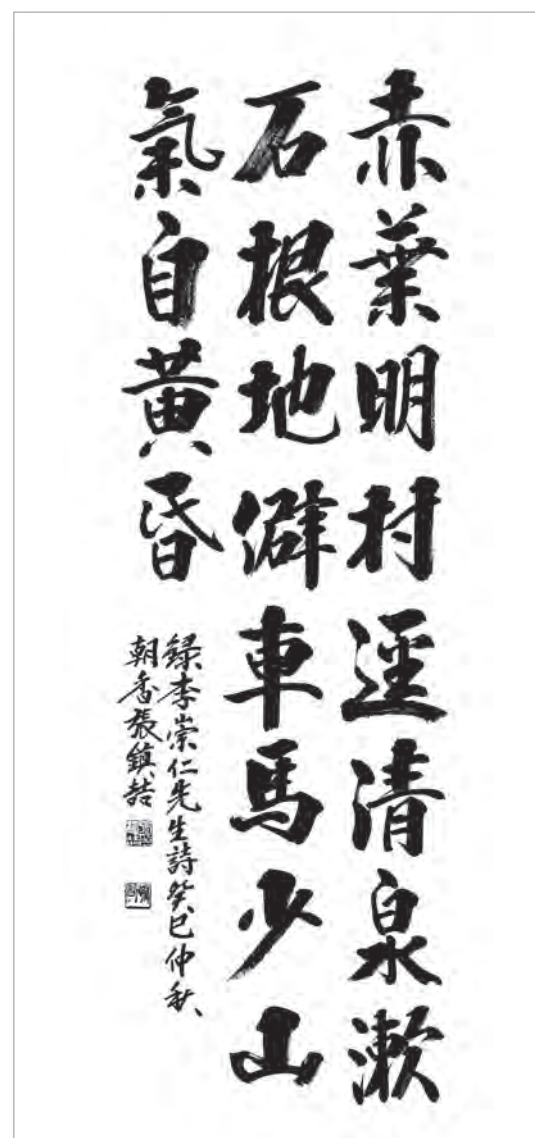
碧眼對青山
墨不
周其品
自然清
秀何憂
縹緲
更
碧眼對青山
墨不
周其品
自然清
秀何憂
縹緲
更

碧眼對青山
墨不
周其品
自然清
秀何憂
縹緲
更

이 종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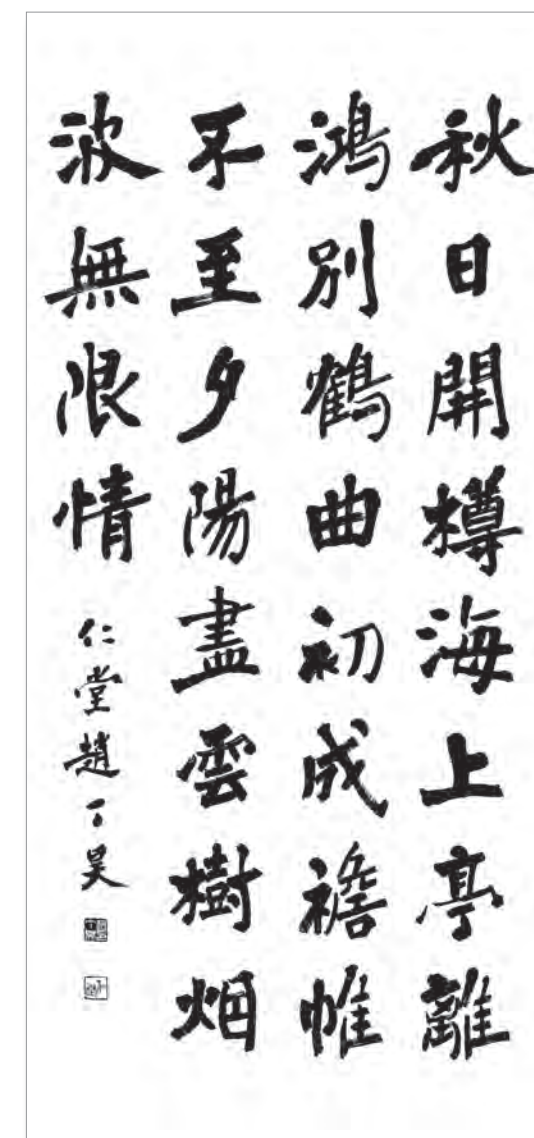
임 지 선



장 진 철



전 우 진



조 정 호



지 길 수



최 청 환



한 이 섭

時節當搖落親朋苦別離
孤鴻亭遠興可馬內東歸
魚稻供鄉味江山繙小詩
還知獻壽酒喜氣帶庭闈

癸巳秋錄三峯先生詩時蘇高德萬

강 덕 만

秋天如掃淨無埃故
把山烏向夜開鴻鴈
兩三何處至却疑塞
北有書來

錄月南先生詩
癸巳秋凡民姜昌秀

강 창 수

深院花紅雨長林竹翠煙
白雲凝嶺宿青鶴伴僧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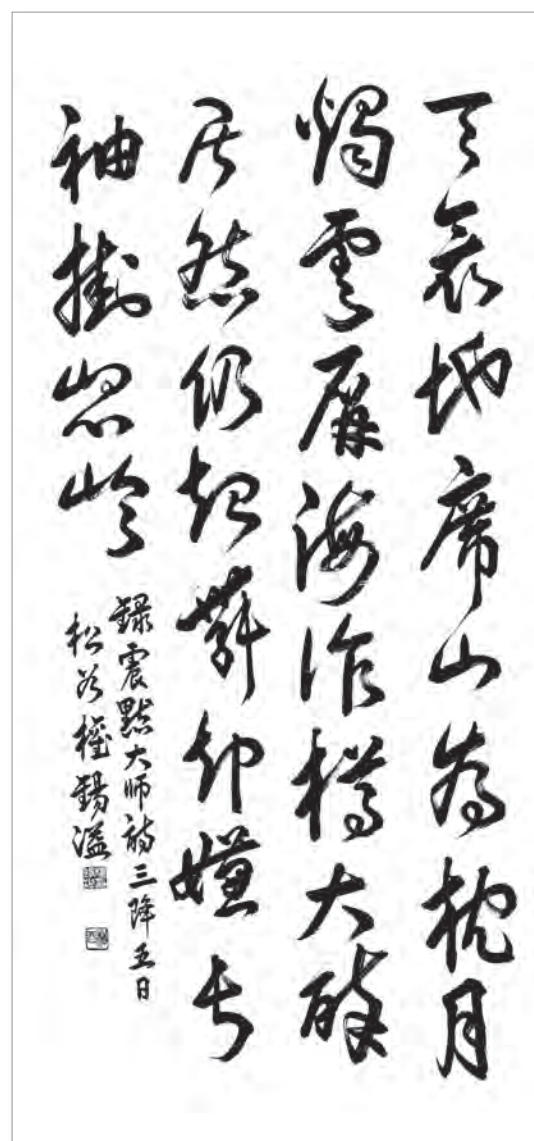
癸巳年 晚秋 澄谷具周會

구 주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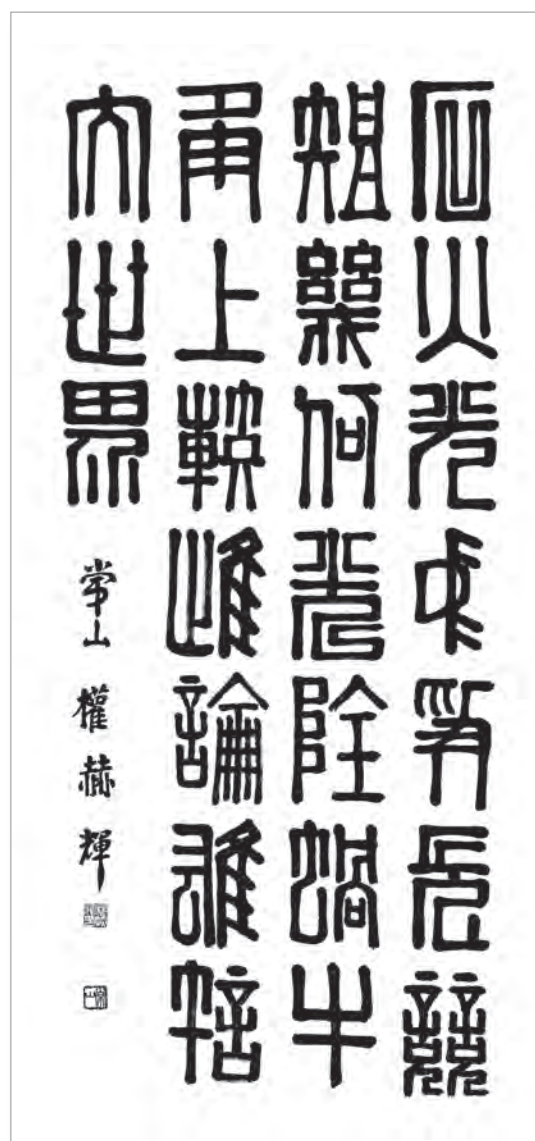
為斷忠孝旨法本自儒家胡
禪理喻標水月鏡荅

癸巳秋節去秋史先生詩 舒亭權起確

권 기 학



권 석 일



권 혁 휘



김 금 자



김 능 식



김도식



김문숙



김문환



김석현

江碧鳥逾白 山青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癸巳年秋節 錦杜甫先生詩 山谷金景培

김 성 배

赤葉明村逕 清泉漱
石根地偏車馬少 山
氣自黃昏

昌谷金性草

김 성 초

雪垂多紅蛇

梅老竹枯山石上 雪自江村生寒水骨節身
如玉瘦形如畫 亦奇精神爽不昏 長風掀鐵笛
暖自入禪 團圓三美 詩句水邊 長江 益溫 白 何 筆

癸巳年秋節 錦杜甫先生詩 山谷金景培

김 성 호

禍福無門 惟人自召 善
惡之報 如影隨形

癸巳秋 穆溪
金成姬

김 성 희

孤烟生曠野殘月下
平蕪為問南來雁家
書寄我無

和宇金淑基

김 숙 기

美玉生光磨琢後良
材增彩切磋餘人而
不學終墻面今達成
功在讀書

文耕金承漢

김 승 한

盛年不重来一日難再晨
及時當勉勵歲月不待人

癸巳晚秋霄鶴金泰吉

김 태 길

溪院經聲調短牆
東隣病客土壺堂
氣清心淨秋來甚
始信靈臺即道場

癸巳立冬節錄牧隱先生詩素隱金允羅

김 태 라

青山買得雲空得白
水臨來魚白來

癸巳秋 貞岩
金漢鏞

김 한 용

故園眇何處歸思方
悠哉淮南秋雨夜高
齋聞雁來

銘韋應物先生詩 癸巳秋
研習金賢泮

김 현 속

聞道樂天斯聖域惟
顏去步不爭多我今
唯覺天堪畏樂在中
間可詠歌

癸巳秋錄退溪先生詩
羅荷魯成麟

노 성 진

明珠白璧在人間
勢奪權爭不放閑
若使水輪為五寶
豈容垂照到窮山

銘其覺國師詩 慧謙
癸巳秋 琴峯柳奇炯

류 기 형

晨窓林影開夜復山
泉響隱此復何求無
言道心長

杲岩朴建善

박 건 선

篤初誠美慎終宜令
榮業所基藉甚無竟

癸巳年仲秋之節松庵朴起助

박 기 조

京洛風塵際開河悵別時
踈慵吾已痼華蔭爾還奇
世業須無玷家聲要共持
光陰知易駛卷裏有餘師

癸巳秋錄象村先生詩惠閣朴炳祚

박 병 조

酒熟花初發詩情俱在眉
苔同石喜各夢共床知蛩雨
青燈暗雁霜赤葉遲重陽看
漸近又是把盃時

錄秋史先生詩
朴承鎬

박 승 호

詩書為業功名顯孝
友傳家道德全

癸巳秋 朴玉子 書

박 옥 자

有約來何晚 連梅欲謝時
忽聞枝上鵲 虛盡鏡中眉

癸巳秋 錄李玉峰詩 筆心朴殷洙 書

박 은 수

靜坐月明中 孤吟破
清冷隔溪先 鶴來踏
碑梅花影

錄翁照先生詩 癸巳秋 尤法朴鍾協 書

박 중 협

黃花淡秋光 老落
茶聲多夜氣 清月卷
讀書如對坐 正心養
性學真人

癸巳年清秋佳日 青山朴鍾和 書

박 중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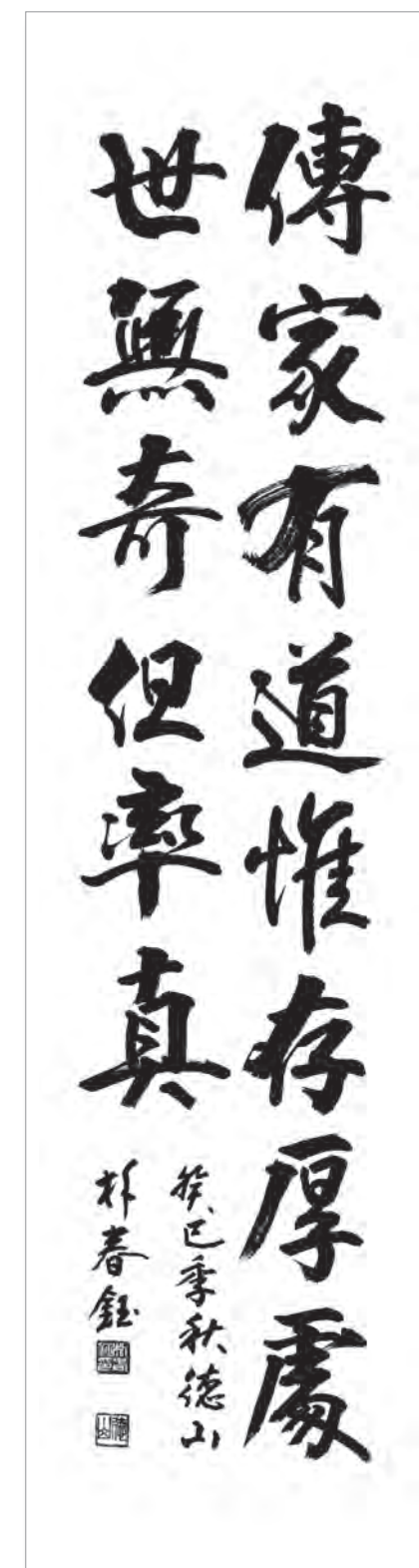
박 중 후



박 주 원



박 찬 배



박 춘 옥

塞天如水碧雲輕散
步長程見客情最是
故山今夜月隨人百
里獨分明

癸巳榮秋寶坡先生詩
申田徐千文

我自西湖千里程來
遊故國旅愁生黃旗
紫蓋歸何處唯見殘
碑落照明

曉林宋惠淑

先對奇巖碧海壑孤
雲遊蹟總成煙只今
唯有高臺月留得精
神向我傳

錄退溪先生詩
深谷吳炳學

蓬生麻中不扶自直
白沙在泥與之皆黑

癸巳仲秋市男吳俞炳吉

林亭秋已晚
騷客意無窮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山吐孤輪月
江金萬里風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

錄李珣詩 癸巳仲秋
召安尹慶泮

윤 경 숙

霜天留飲故情歡
銀燭金爐夜不寒
欲問吳江別來意
青山明月夢中看

癸巳仲秋
伯軒尹明子

윤 명 자

謙遜及敬畏主之果報即
富有尊榮生命孰得才德
之妻乎其貴重速起玕珠

癸巳仲秋錄藏言句香蓮尹福任

윤 복 임

教他先察自身行擇
友且看事親誠

癸巳之秋
懿皓尹福近

윤 우 근

澄江涵浦涵新月
蒼烟雲錦——滿地
寰心乃海中仙

黃善先生詩
衡汀李頌上

이 병 상

宮殿盤鬱樓觀飛驚圖寫禽獸畫綵
仙靈兩舍傍啓甲帳對楹肆筵設席
鼓瑟吹笙陞階納陛弁轉疑星

癸巳年末次節
曉泉李相寬

이 상 관

云不琢不成器人學不知義嚴父出孝子
見善如不及見不善如探湯一日不念善
諸惡皆自起終身行善猶不足一日行
惡自有餘恩義廣施人生何處不相逢
讐怨莫結路逢狹處難回避死生有命富
貴在天哀々父母生我幼勞

曉泉李相寬

이 상 관

秋風惟苦吟
知音窓外三更雨
前萬里心

嶺山李允範

이 윤 범

張湛吟嚴好禮動止有則
居處幽室必自修整雖
妻孥嚴君焉及左鄉黨
詳言正比三輔以為儀表

李紳文欽笑靜李照價



이 희 정

鏡上寒山石經綫白
雲生處久停車
坐裏楓林晚霜葉紅
於二月來

錦杜牧先生山行詩
新岩李台鶴



이 태 호

處獨居閑絕往還只
呼明月照孤寒憑君
莫問生涯事萬頃煙
波數疊山

慈軒李鍾姬



이 중 희

風定花猶落鳥鳴山更出
天共白雲曉水和明月流

錄李滿元先生詩笑已之秋江石李鍾彦



이 중 언

開門握手問來從忙
把重茵掃翠松雲散
月生天宇靜清談仍
到五更鍾

癸巳仲秋梅月堂詩
然生堂印若貞

인 화 정

新莖未遍半猶枯高
架支離倦復抹若欲
滿盃堆馬乳莫辭添
竹弘龍鬚

錄退之先生詩
笑已雲台林載豐

임 재 품

性靜情逸心動福
暇年頁步滿後物
意超堅持難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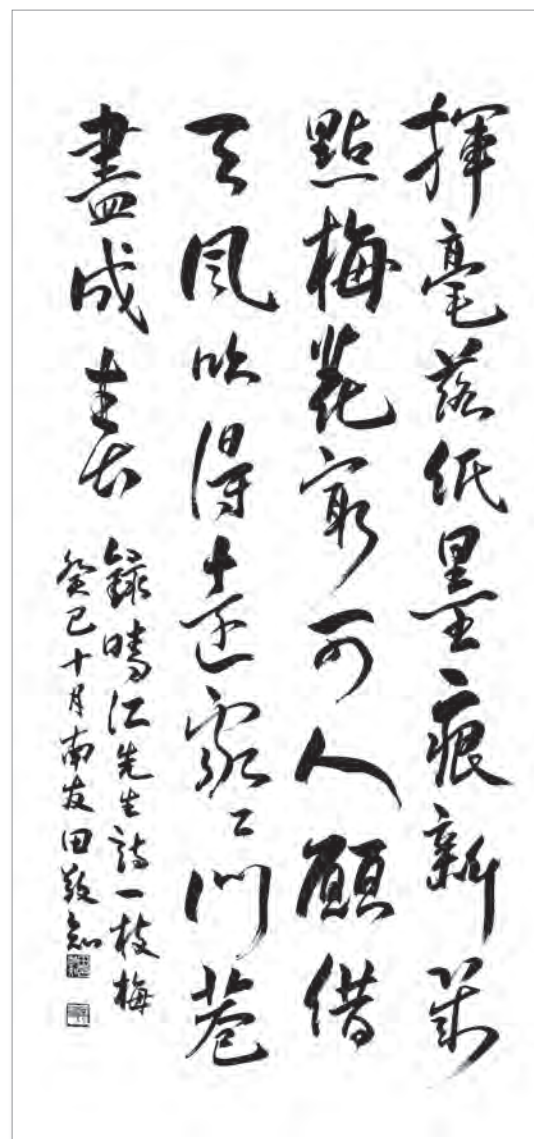
石苑

임 창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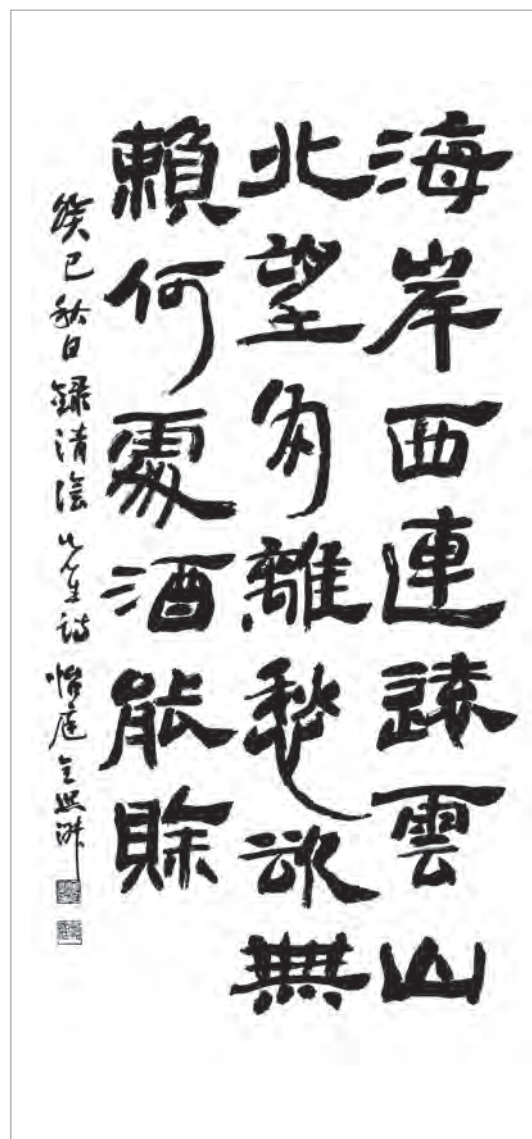
綠樹陰中黃鳥節青山影裏
白茅家閒來獨步蒼苔迺雨
後微香動草花

雲庭張順任

장 순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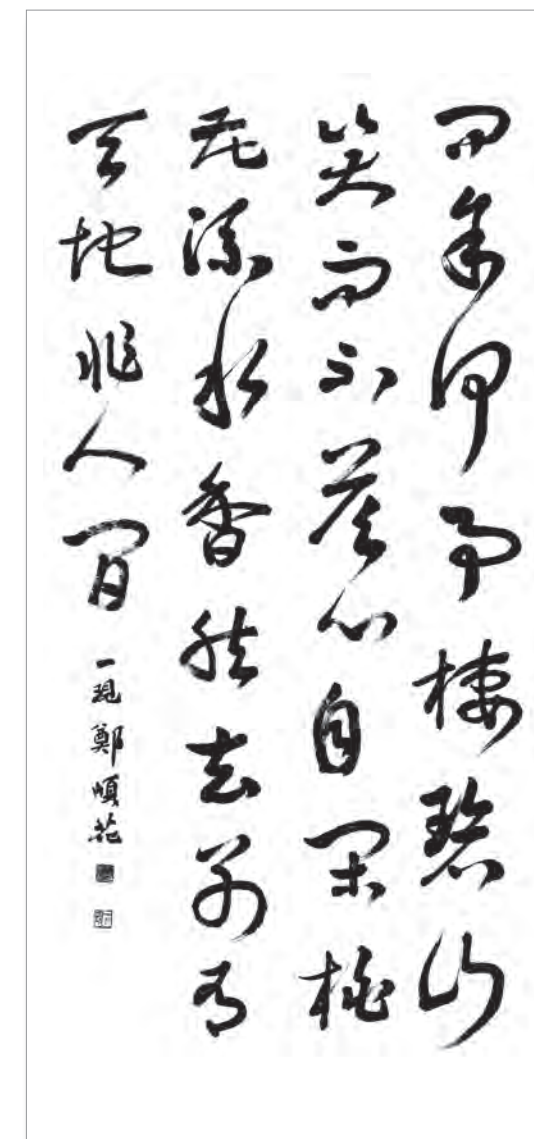
전 경 지



전 희 숙



정 모 영



정 순 화

事父母盡孝教子孫以禮
夫婦和而敬兄弟湛而樂

癸巳之秋自庵先生追慕揮毫大會義狀鄭殷亮

정은량

溫故知新博學問修身齊
家行自嚴仁義禮智和與
世孝悌忠信衆人範

錄經句戒吟癸巳年菊秋冠谷鄭泰銘

정태현

終朝高咏又徹吟苦
似披沙飲鍊金莫怪
佞詩成太瘦只騷佳
句每難尋

錄圓隱元祖詩癸巳秋日
孫熙明謹書

정희명

錦山黃野碧江秋萬
頃波頭一葉舟

癸巳晚秋南岡
申喜成

조희성

秋空寥廓鳥驚棲餘
滴玲瓏竹影低曉雲
含雨歸前島落月猶
留古堞西

癸巳之秋龜峰先生詩
菊園朱美羅

주 미 라

晉陽三疊揚青史
地清芬多此樓莊穆
貞忠星外辨翰宗大
義川東流

錄物菴崔益鉉先生詩
仙岩陳銘福

진 현 복

南江秋夜千峰月北
里春風萬樹花雖是
無情閑道者登臨不
得似枯槎

韓國口話學校
中三年李明

춘 월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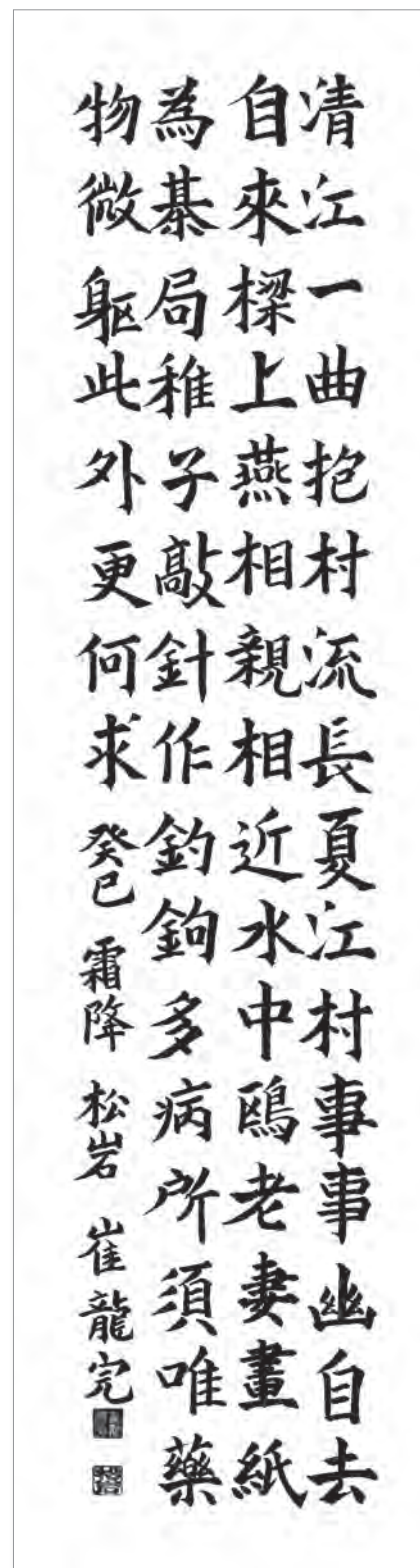
今踏雪堅中去不須胡亂行
我行跡遂任後人程行

錄西山大師詩
癸巳年秋節青永崔文守

최 문 수



최 병 준



최 용 완



최 익 진

2013 조선 4대 명필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 수상작품집 |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340-802 충남 예산군 · 읍 천변로 90번길 3번지
Tel. 041-333-2441, 335-2441 Fax. 041-334-4330
<http://yesan.cult21.or.kr>